

# 꿀벌이 주는 최고의 선물

## 超藥 - 초약 프로폴리스

-지난호에 이어서-

### ◆ 프로폴리스와의 강력 콤비네이션 효과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호오스 마크 크림인데, 그 효과를 한층 더 높여주는 것이 프로폴리스와의 병용이다.

예를 들면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냉수로 차게 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가벼운 화상이라면 우선 환부에 프로폴리스를 섞은 호오스 마크 크림을 바르고, 여기에 거즈를 놓고, 그 위에 물을 부어 차게 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화상이란 말하자면, 피부에 화재가 난 것과 같은 상태이다. 호오스 마크 크림을 발라 피부 표면으로부터의 산소공급을 차단함으로써 그 화재를 진화하고, 염증 부분을 적게 하고, 정도도 가볍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균의 감염에 의한 화농을 방지함과 동시에 프로폴리스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단시간에 치유하여 보기 흉한 화상 자국과 반점을 남기지 않는다는 효과도 있다.

프로폴리스+호오스 마크 크림은 이렇게 피부에 남는 반점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체험담이 있다. 예를 들면 유방암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에 생긴 검은 흔적이 프로폴리스를 사용하는 한편 크림을 발랐더니, 점점 흑점이 연해지고 어느덧 없어졌다고 한다. 또한 가을까지 기미로 남아있던 햇빛에 탄 자리가 이 크림을 발랐더니 여름 전보다 살결이 희게 되었다고 기뻐한 일도 있다.

베인 상처, 찰과상, 타박상, 염좌 등의 외용약으로는 물론, 뼈근한 어깨와 요통, 관절통에도 프로폴리스와 호오스 마크 크림의 배합은 상승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4,50대의 어깨 통증 같은 고통스러운 증상과 류마티스,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심각한 병에도 이 프로폴리스+호오스 마크 크림의 콤비 위력은 압도적이다.

또한 폐암에 걸려 프로폴리스를 사용조차 못하게 된 환자의 가슴에 프로폴리스를 많이 섞은 호오스

마크 크림을 발라 주었더니 호흡이 편해졌다고 말해 준 사람이 있다. 또한 척추에까지 암이 전이되어 견딜 수 없는 등의 통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같은 크림을 발랐더니 편해졌다고 고마워 한 일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는 호오스 마크 크림을 프로폴리스와 병용하면, 호오스 마크 크림이 가지는 높은 침투력이 프로폴리스의 성분을 피부로부터 더욱 깊은 부분으로 침투시키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 질 좋은 프로폴리스의 맛은

그러면 다시한번 프로폴리스의 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는 굳이 프로폴리스 제품의 품질에는 언급하지 않았다(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는 예외도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폴리스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제품에 따라서는 격렬한 부작용이 나는 것도 있다. 또는 부작용이라기 이전에 주작용마저 전혀 느껴지지 않는 품질까지도 있다.

프로폴리스의 질은 아주 조금만 맛보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질이 높고, 지금까지 소개해 온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며, 더구나 부작용이 없는 제품을 입에 넣으면, 처음에 혀 끝에 짜릿한 자극이 있다.

그리고 이런 자극은 순간적으로 혀 끝을 저리게 하고, 곧 없어져 상쾌한 맛으로 변할 것이다. 이것이 프로폴리스 본래의 엑기스가 가지는 맛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그런데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는 프로폴리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낮은 질의 프로폴리스는 우선 눈으로 보아도 느낌이 다르다. 냉수나 온수로 타면 투명감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진이 부자연스럽게 많으며 미세한 가루 같은 불순물이 가라앉는 것도 있다. 또한 성분이 분리되어 좀처럼 녹지 않는 것도 있다.



불행히도 이런 낮은 질의 프로폴리스를 처음 사용하게 된 사람은 프로폴리스라는 것은 흙탕물과 같은 것으로 믿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렇지만 약이 되는 것이니 할 수 없다'라며 생각하고, 구역질을 참아가며 마셨다는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 제품의 유통을 허용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 상황에는 한 사람의 사용자로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인 이상 우리들이 현명한 사용자가 되어 건강을 쟁취하기 위한 길을 스스로 열어 나가지 않으면 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프로폴리스 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다. 제7장에서는 이런 프로폴리스 제품의 품질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정보를 간추려 보았다.

## ◆ 프로폴리스를 알고 있는 '메이커'는 극소수

일본의 프로폴리스 업계에서도 여명기에는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었다. 예를 들면 당시의 해외문헌에 의하면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다양한 기원 식품을 가진 프로폴리스를 혼합한 것이 효과가 높다고 씌어져 있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제품화하기 위한 연구에 진지하게 몰두하는 어느 회사는 여러 종류를 혼합한 프로폴리스를 대상으로 작업을 출발시켰다. 그런데 시작 제1호 프로폴리스에는 전혀라고 해도 될 만큼 효과가 없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 후 프로폴리스 연구는 어떤 종류의 프로폴리스가 효과를 없애는가 하는 소거법에 의한 선별과 아울러 더욱 유효한 프로폴리스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하는 방법 모색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실로 지지부진했다. 그것은 하나의 프로폴리스 시작품이 완성되면, 그것을 협력자가 실제로 사용하여, 효과의 유무를 확인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이 취해졌기 때문이다. 현재는 상식이 된 브라질산, 유칼리 유래의 프로폴리스의 우위성도 이렇게 착실한 작업으로 하여 발견된 것이다.

수없이 많은 실험을 통해 현재 고품질로 평가되고 있는 프로폴리스를 공급하는 기술과 '노하우'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겨우 최근 수년 전부터 안

전하고 질 좋은 프로폴리스 제품이 일부 '메이커'로부터 안정된 공급을 받게 되었다. 지금의 프로폴리스 붐을 일으키게한 것은 암을 죽이는 작용의 발견과 이들을 전해 준 '매스컴'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붐을 지탱해 준 것은 이렇게 노력을 쌓아온 '메이커'들이라 하겠다.

현재는 프로폴리스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메이커'가 급증하여 200개사, 혹은 500개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메이커'들 중에는 이러한 시행착오 경험이나 '터부'에 대한 '노하우'의 축적을 가지지 못한 곳도 적지 않다. 그 결과 프로폴리스의 내력도 모르면서 프로폴리스를 수입하여 추출하고, 제품으로 만들어 팔아 버리는 난폭한 일이 있다는 것은 가공할 현실이다.

프로폴리스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이, 해외로부터 제품을 안이하게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업자가 눈에 띈다. 그리고 사용자 중에도 이런 해외 상품을 신용하기 쉬운 면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들 프로폴리스에 대한 깊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메이커' 중에는 값싸고 좋지 못한 원료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여 대량생산하는 메이커로부터 프로폴리스를 사들여, 이것을 자기 회사 마크를 붙인 병에 넣어 판매하는 업자까지 존재한다. 그 중에는 프로폴리스 이외에 아무런 '라벨'도 붙이지 않고, '메이커'명도, 제조회사도, 연락처도 전혀 알 수 없이 유통되고 있는 악질 상품도 볼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정말 좋은 프로폴리스를 확실한 기술과 연구에 기초하여 자신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메이커'는 국내에서는 겨우 몇 군데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에는 외국에서 제조된 프로폴리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게 되었다.

대다수는 해외 여행에서 가격이 싼 맛에 끌려 선물로 사오는 모양인데, 대단히 싼값으로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도 약간 있다. 이런 외국산 프로폴리스는 구입하긴 했지만, 막상 사용하려 하면, 사용할 수 없는 조잡한 제품이 많은 것이 현실정이다.

일본과 달라 제조과정에서의 원료관리에 문제가 있던가, 정제 과정이 불안전할 수도 있는 외국산 프로폴리스는 솔직히 말해서 권하고 싶지 않다.

## ◆ 품질의 결정은 원료 선별에 있다

프로폴리스는 그 원료에서 에센스를 추출하여 제



품화된다. 따라서 그 품질의 근본에는 원료의 질이 반드시 관계된다. 원료에 관해서는 많은 ‘메이커’가 브라질산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 산지의 표시도 현재는 고품질을 말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는 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프로폴리스 원료의 수요가 높아진 현재로는 브라질산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고품질인 것이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프로폴리스 원료의 80% 이상이 사용할 수 없는 조약품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더욱이 고가로 거래되는 브라질산이라고 속여서 대만산, 미얀마산, 오스트레일리아산 원료를 브라질산 원료에 섞은 사진도 있었다.

더구나 원료의 품질을 보기만 해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다. 프로폴리스에 정통한 전문가가 아니면, 감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로폴리스를 공급하고 있는 확고한 ‘메이커’에서는 브라질 현지에 지정 전문업자와 계약을 하는 등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고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내진 원료를 엄격히 체크하면 쓸모 없는 것이 많다고 한다.

현재 일본의 ‘메이커’ 중에는 독자의 원료 기준을 설정하고, 그 레벨에 미치지 못하는 원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 자세를 지키고 있는 회사도 있다. 이렇게 진지한 태도를 관찰하고 있는 ‘메이커’에서는 프로폴리스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적인 제품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도, 앞으로 어떤 특정한 질병에 효과가 있는 특수한 용도의 프로폴리스 제품으로 될 가능성을 찾아낸 것은 더 없이 기쁘다.

프로폴리스 원료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엑기스를 추출한 후의 원료를 추출전의 원료와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귀찮게도 이런 사용 후의 원료에서 추출된 액체는 당연히 효과는 전혀 바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색깔과 냄새, 맛 등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외견상의 특징은 추출방법에 따라 수 차례의 추출로써는 변화가 없다고 하니, 원칙적으로 경계해야만 할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일본에서는 추출해 버린 원료가 수입되어, 프로폴리스 제품의 원료로 유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 국내에서 추출 작업을 끝낸 찌꺼기를 일본에 보내는 약질업자도 난립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일이 채취 후 수년을 경과한 원료에도 있다. 이 경우에도 원료의 모양과 추출액의

특징으로서는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유효한 성분을 추출할 수 없으며, 효과 있는 프로폴리스 제품의 원료는 될 수 없다.

## ◆ 프로폴리스의 알콜 추출이란

현재 일본에서 시판되고 있는 프로폴리스 제품에는 액상, 정상, 과립상의 세 타입이 있는데, 그 원료가 되는 프로폴리스의 원액을 얻기 위해서는 프로폴리스 원료로부터 ‘알콜’ 또는 물을 용매로 하여 엑기스를 추출한다. 시판되고 있는 제품의 대부분은 알콜 추출에 의한 것이며, 브라질과 동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폴리스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보아서도 좋은 품질의 프로폴리스는 알콜 추출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가 거의 고정되고 있다.

실제로 이 책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출판된 프로폴리스 해설서적과 잡지 기사 등에 소개된 체험담의 거의 전부가 알콜 추출액에 의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의 것이며,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는 과학적인 실험과 증명에 알콜 추출액 이외의 것이 사용되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알콜 추출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순도 높은 ‘에탄올 알콜’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틸알콜’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맥주와 정종, 위스키 등 ‘알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외에, 의약품으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프로폴리스의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왜 알콜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프로폴리스 원료는 그 80%가 왁스와 벌꿀이며, 이것을 용해하는데 알콜이 가장 유효하기 때문이다. 만약 프로폴리스가 용해된다면, 꿀벌둥지는 비가 오면 붕괴될 것이다. 태고시대부터 살아 남아온 꿀벌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프로폴리스의 유효성분의 하나인 ‘후라보노이드’도 물에 용해하지 않으므로, 알콜을 사용해야 추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알콜 추출의 액체를 마시면, 간장에 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 어린이와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은 쓸데없는 걱정이라 할 수 있다. 프로폴리스는 정종이나 맥주처럼 힘차게 꿀꺽꿀꺽 마시는 것이 아니다. 1회에 몇 방울의 양을 냉수나 온수에 타서 마시는 것이다. 스포이드 20방울이



1ml니, 알콜에 약한 체질인 사람과 어린이가 20방울의 양을 몇 번에 나누어 마신다해도 몸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해도 되겠다.

실제로 나의 주위에서는 알콜 성분이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섭취하면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와 알콜에 과민한 체질인 사람도 프로폴리스의 알콜 추출액을 먹는 예가 있으나, 전혀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 ◆농도,속성 논의는 활발하지만...

프로폴리스를 소개하는 기사를 읽으면, 가끔 '프로폴리스의 농도' 라는 말이 나온다. 이 '농도'가 프로폴리스 액이 냉수나 온수 속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섞여 있는가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너무 희석되면 높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반대로 지나치게 진한 경우에는 흡수 효율이 떨어지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농도가 제품의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 수치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프로폴리스 액에서 그 속에 어느 정도의 유효성분의 양이 액의 농도와 비례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농도 높은 추출액을 만들려면, 60-70%의 알콜을 사용하며, 이것을 고온에 장시간 둔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억지로 고농도로 추출된 프로폴리스 액을 사용해도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고농도의 추출액에는 프로폴리스의 '베이스'가 되어 있는 필요한 부분까지 녹아 내리기 때문이다. 이 '베이스' 부분에는 지방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추출액 속에 녹아들면, 맛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성분이 녹아 흘러버렸기 때문에 필요한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본말전도이며 년센스라고 하겠다.

이러한 농도논쟁은 홍차를 마실 때, 포트에 넣어 펄펄 끓여서 다린 찌꺼기 부분까지 철저히 우려진 것을 좋다고 하는 격이다. 이런 방법으로는 홍차의 진정한 맛을 알 수 없게 된다. 진정 본래의 좋은 맛을 없애 버리는 것이, 이런 고농도의 프로폴리스 추출액이라 하겠다. 이상적인 추출방법은 프로폴리스 원료에 알콜을 침투시키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었다가, 이것을 재빨리 끄집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추출액의 제일 윗층(막이 생긴 듯한 부분)과 아래층(침전물에 가까운 층)은 사용하지 않고, 중간층의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부분만

을 살짝 들어내서 사용하는 것이 최고이다. 대단히 노력이 필요한 방법이다. 말하자면 드립식 커피에서 제일 먼저 뽑은 일부 짙은 커피만 마시고, 커피 찌꺼기는 즉각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효과 높은 프로폴리스 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신중성이 필요하다.

또한 메이커에 따라서는 '프로폴리스의 숙성기간'과 '나무통에 저장한 것'임을 내세워 상품선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나에게 '몇 년쯤 숙성시킨 것이 좋은가'고 문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아주 무의미한 것이라 생각한다.

와인이라면 몰라도 알콜에 의하여 '엷센스'를 추출한 프로폴리스 액의 경우에는 숙성된 것이 더 좋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원료를 장시간 알콜에 담가두면, 필요한 성분이 녹아버리는 한편 유효한 향기로운 물질이 변질해 버릴 분이다. 만약 프로폴리스에 숙성이라는 공정이 필요하다면, 4,200만년 전의 꿀벌들이 이미 해냈을 것이다. 이런 방법은 자사제품의 특징을 어필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예를 들면 한국인삼(고려인삼)을 약용 술로 만드는 것과 같은 발상이며, 다른 건강식품의 노하우를 프로폴리스에 그대로 접목시키는 것은 인식부족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프로폴리스 제품들에도 찌꺼기와 불순물이 혼합된 것이 눈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용기에 넣은 것과, 보존이 우려되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 싸구려 제품까지 나돌고 있지만,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메이커'에게는 한층 더 프로폴리스에 대한 연구를 거듭할 것을 바라고 싶다.

- 다음호에 계속 -

## 중봉분양안내

- 분양군수 : 1,100군
- 가 격 : 7~8만원
- 군당 매수 : 6~8매
- 문의전화 : 정해석(강원도 영월)

033-374-2621, 011-369-4230

- 하우스 화분매개용 중봉 환영(가격절충)